영양군 삼지지구 농촌테마공원 발전계획

민흥기 • 백승석 • 송이* • 리신호*

한국농어촌공사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Development Plan of the Rural Experience Theme Park in Samji Area, Youngyanggun

Min HeungGi • Baek SeoungSoek

Song Yi* • Rhee Shinho*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Dept. of Agricultural and R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promotes the improvement of local incomes and rural activation by establishing rural experience theme park plans using local resources of Samji district, Yeongyang-gun.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s the whole district of Samji 1-ri, Yeongyang-eup,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the destination area is 129.927m². The scope of the contents was to investigate general status of the site and was conducted as a basic plan, a basic planning stage through analysis of terrain and topography, slope analysis, aspect, SWOT analysis.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ers to experience is increased, activation of rural exchange and income-generating infrastructure can be expected by creations the space of rural experience theme park. Themes are selected systematically and variety of the programs and spatial planning will be analyzed to promote more efficient business.

Key words : Rural Exrerience, SWOT, Theme Park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삶의 질 향상, 소득 증가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관광은 농촌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소득창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친다(강신겸, 2005). 또한 주 5일 근무제와 수업제, 휴가 분산제의 도입과 국민연금제 실시 등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농촌관광, 농촌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를 농촌지역 활성화 및 소득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농촌관광, 체험학습, 농산물 직거래, 1사 1촌 자매결연 등 다양한 유형의 농

촌-도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활력과 소득증대를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특산물들을 테마화하고 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특산물, 경관자원,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자원 등을 소득으로 연계시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지역 정체성 구축 및 지역의 특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농어촌테마공원의 바람직한 조성방향이나 효율적인 추진방법, 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농촌자원을 테마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마을 사업을 진행한다(김용근, 2008).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관광 및 농도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농어촌테마공원의 바람직한 조성 방향의 정립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보전 및 소득화와 연계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하다(이정진, 2009).

본 연구에서는 영양군 삼지지구를 대상으로 지역 고

Corresponding author : Rhee Shinho

Tel : 043-261-2574

E-mail : rhee2574@chungbuk.ac.kr

유 자원의 테마화 및 농도교류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계획함에 있어서 연구대상의 개발여건분석을 통해 테마와 공간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일원이고, 대상지 면적은 129,927㎡이다. 내용적 범위는 대상지의 일반현황을 조사하고, 지형 및 지세분석, 경사분석, SWOT분석을 통해 기본구상, 기본계획단계로 진행하였다.

II. 농촌테마공원

1. 농촌테마공원의 개념

농촌테마공원은 체험·학습·관광 요소가 결합된 차별화된 공간으로 농촌관광에 테마공원의 개념을 결합시킨 것이다(김용근, 2008). 농촌자원을 주제로 농촌지역에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주민들과 도시민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조정주, 2010). 농촌테마공원은 5가지 특성을 가진다(Table 1). 개발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각 테마별로 구분된 공간을 조성하는 테마성과 테마공원 내의 환경 및 시설물들의 테마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테마공원 주변지역과 통일함을 갖는 통일성이 있다. 시설물, 상품, 체험프로그램,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하는 통합성이 있다.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특화된 자원으로 테마를 설정하는 고유성이 있으

며, 또 일반 테마공원과 다른 농촌지역임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테마 및 시설물들을 계획하는 친환경성이 있다(최세현, 2011).

2.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국내에서 농촌테마공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경진 등(2009)은 독특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광시한우농업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통해 지역단위 문화행사 및 축제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명소를 부각시킴으로서 지역발전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며, 지역내 경제적 소득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을 새로운 거점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하였다.

박청인(2010)은 농촌테마파크의 사전 기대된 이미지는 이용자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와 사후 재방문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 초기 단계인 농촌테마파크의 기대된 이미지 이용 후 지각된 성과가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리신호(2011)는 농촌테마공원을 정의하고, 조성된 농촌테마공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향의 설정과 농촌테마공원을 계획함으로써, 농촌테마공원의 바람직한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박미숙(2012)은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유성 체험요소를 엔터테인먼트화하여 관광체험요인으로 발전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였고, 사례지의 지역 고유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보다 적용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요소

Table 1 농촌테마공원 특성

구 분	내 용
테마성	개발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각 테마별로 구분된 공간조성
통일성	테마공원 내의 환경 및 시설물들의 테마와의 연계성 고려 테마공원 주변지역과의 통일성
통합성	시설물, 상품, 체험프로그램,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
고유성	어메니티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특화된 자원으로 테마를 설정
친환경성	농촌지역임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테마 및 시설물들을 계획

의 도출을 통하여 구현하지 못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III. 대상지분석

1. 대상지 현황분석

영양군은 경상북도 동북부 태백산맥의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경북의 4.3%인 815.10km² (2008.12.31 기준)이다. 동쪽은 울진군과 영덕군, 서쪽은 안동시, 남쪽은 청송군, 북쪽은 봉화군 등 5개 시군과 경계하고 있다. 서울과의 직선거리는 210km, 대구와 직선거리 105km, 그리고 인근 대도시인 안동과 직선거리가 47km 정도이다. 대상지는 영양군청에서 동쪽 방향으로 수평거리 1.7km에 위치하여 도보로 약 25분, 자전거로 7분 정도가 소요되며 국도31호선에 인접하여 있다. 태백산맥이 동남방향으로 뻗어 많은 대소계곡을 형성하여 북고남저의 산간분지상의 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발고도가 경북에서 가장 높다. 총 1개 읍, 5개면, 114개 리(행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비면, 청기면, 영양읍의 규모 순을 보인다. 국가간선도로 및 지역간선도로로부터의 접근성이 낮고, 동해안 해상권역과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원인으로 교류가 저조하여 개발정책상의 혜택 등이 미흡하다. 토지현황은 임야가 전체 면적의 85.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인 전이 6.77%이다. 이렇듯 영양군의 대부분 지역이 산림이며 논의 비율보다는 밭의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가. 자연 현황

대부분의 표고가 10~70m의 완만한 경작지(전, 답)와 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산림이 분포하며, 중앙에는 수심 1.5~1.7m 정도의 파대지가 위치한다(Figure 1). 대상지 중 경사도 10도 이내인 부분이 94.3%(129,927m²), 10~20도가 4.8%(6,236m²), 그리고 20도 이상이 0.9%(1,170

m²)를 차지한다(Figure 2). 이처럼 대부분이 완만하여 개발하기에 적절한 가용지이므로, 기존 지형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지는 전반적으로 평탄하고 남향이므로 하루종일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요시설물은 일조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계획한다. 평균기온 12.1℃, 평균습도 70%, 일조시간 2,173.9hr, 평균풍속 1.7m/s으로 조사되며 한서의 차가 크다(Figure 3). 경북의 연평균강수량은 대략 900~1,100mm이며 낙동강 유역의 내륙분지는 대부분 1,000mm 이하의 소우지로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적다. 연구대상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나. 인문·사회 현황

삼지리의 인구수는 전체 영양군의 0.4%인 76명이며, 세대수는 41가구로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연령별 인구는 60~80대가 54%를 차지하여 극심한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근접하게 국도31호선과 지방도918호선이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대상지 남쪽에 2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에 이미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예정인 주차공간이 충분하므로 대상지에는 주차공간 조성을 배제한다.

고추밭과 인삼밭이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상지 중앙에는 수심 1.5m~1.7m 파대지가 있다. 남서쪽으로는 밤나무, 아카시아나무, 찔레꽃 등이 위치한 산림이 인접하여 있으며 이산지를 사이로 마을길이 형성되어 있고, 북쪽 마을 중심에는 코끼리산(옥산)이 있다. 계단식 경지정리와 용배수로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연구대상지 개발 시 활용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남쪽으로는 경찰서, 영양여고와 영양고추유통센터가 위치하고, 북동쪽에는 국도 31호선, 남쪽으로는 지방도 918호선이 지나가 접근성을 높인다(Figure 4).

Figure 1 지형 및 지세 분석.

Figure 2 경사 분석.

Figure 3 향 분석.

Figure 4 대상지 현황도.

2. SWOT분석

대상지를 종합 분석하여 SWOT분석을 하였다(Table 2).

강점요인으로는 명품 영양고추의 생산지로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친환경 고추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관련계획, 삼지연꽃테마공원과 삼지연유기농한방생약단지와의 연계되어 관광센터로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오지두메산골로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생태

와 파대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하고 잠재가능성이 큰 전통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산재 되어 있다.

약점요인으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이 좋지 않아 관광객 접근성이 어렵다. 인근의 봉화·청송 또한 영양과 함께 오지두메산골 이미지로서 아름다운 청정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로 인해 파대지에대한

Table 2 SWOT분석

강 점 Strengt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영양고추의 생산지로서 인지도 • 친환경 고추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관련계획 진행 중임 •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생태와 파대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경관 • 풍부하고 잠재가능성이 큰 전통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산재 • 조성 예정인 삼지연꽃테마공원과 삼지연유기농한방생약단지와의 연계되어 관광센터로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
기 회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차원에서 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 추세 •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의 신설, 기존도로선형 변경 및 확충 계획 등으로 인한 접근성의 향상으로 가족여행, 중거리 여행의 수요 급증이 예상 • 인근 안동시, 영주시도 많은 문화재를 보유함으로써 연계관광 추진 용이

약 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위치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의 미약함으로 관광객 접근성의 어려움 • 개발로 인해 파대지에 대한 영향 및 청정상태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 존재 • 인근의 봉화, 청송 또한 영양과 함께 오지두메산골의 이미지로서 아름다운 청정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 이 도시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위 험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농촌마을과의 무한경쟁 • WTO, FTA 등 농산물 수입시장 개발에 따른 경쟁력 약화 •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력 부족 • 방문객의 증가로 환경오염 가능성 높아짐

영양 및 청정상태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획요인은 군차원에서 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과 더불어 이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 5일제 근무제뿐만 아니라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의 신설, 기존도로선형 변경 및 확충 계획 등으로 인한 접근성의 향상으로 가족여행, 중거리 여행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문화재를 보유함과 동시에 문향의 고장이고, 인근 배후도시인 안동시, 영주시 역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함으로써 연계관광추진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전국 농촌마을과의 무한경쟁을 시작하게 되고, WTO, FTA 등 농산물 수입시장 개발에 따른 경쟁력 약화된다.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력 부족하고, 방문객의 증가로 환경오염 가능성 높아진다.

요인들을 통해 전략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SO전략으로 대상지와 관련한 계획 및 인근 관광자원과 더 나아가 배후도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연계한 개발, 교육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가족·아동·청소년을 타겟으로 하여 ‘고추’를 소재로 다양한 휴식·편의시설을 개발한다. ST전략은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영양고추’ 및 영양군의 이미지를 도모하고, 주변관광 자원들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및 관광루트를 구축한다. WO전략으로는 주변 숙박과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근거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도입한 당일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영양고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개발시킨다. 기존 지형 및 식생과 파대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WT전략은 소득창출을 위해 주민이 참여가능 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령화된 주민이 소득창출을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IV. 기본구상

1. 테마선정

가. 테마선정배경

Figure 5 테마스토리 전개.

영양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주제로 하여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양고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한다. 신선한 체험과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영양 특유의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4계절형 테마관광자원으로 부각하도록 한다. 또한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영양의 청정자원을 느끼며 자연에 순응하며 삶의 여유로움을 맛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나. 테마전개

영양고추의 매력에 이끌려 삼지리를 찾게 되고 청정 자연의 생명력을 느껴 자연에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두메시골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끼고 마을주민의 정을 느끼는 스토리를 구성하여 흥미로운 테마를 전개한다. 또한 방문객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가변적인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화감 있는 테마를 구현한다. 스토리텔링 양성을 통해 지역주민 및 유휴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2. 공간선정

가. 기본방향

영양고추를 매개로 우리 맘 속 고향과 같은 시골로 마실을 떠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곶이 곶이의 테마별 공간을 도입하여 공간의 진행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Figure 5). 대상지의 지형과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환경파해를 최소화하는 생태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공간구성 시 기능과 활동유형을 고려하여 진입/상징 공간, 조망/휴식 공간,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한다.

나. 공간별 계획방향

진입/상징 공간의 테마는 ‘산 넘고’이고, 테마공원의 주

진입 공간으로 대표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테마공원에 대해 소개하고 테마공간의 진행에 따른 공원프로그램 안내 및 이용방법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조망/휴식 공간의 테마는 ‘물 건너’이고, 기존 자연자원을 활용한 조망·휴식공간으로 주변지형과의 조화 및 연계성을 강조하고 생태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전시/체험 공간의 테마는 ‘굽이굽이’이고, 삼지리 두메시골의 정취와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을과 상생해 나아가는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을 통해 정겨운 고향마을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취와 따뜻한 인심을 간직하고 있는 영양의 고향 풍경을 명소로서 알리기 위한 계획이다. 또한 청정 영양의 자연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계획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자발적 참여 공간과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과 상생해 나아가는 계획을 제시한다.

2. 공간별 계획

‘산 넘고’는 ‘영양고추’의 자극에 중독되어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공간으로써 테마공원의 주 진입공간으로 ‘영양고추’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공원 방문객에게 ‘영양고추’의 매력과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높은 녹지 비율의 숲 개념 공간을 도입하여 숲속을 걷는 느낌을 연출하고 연계된 공간에서 모임, 휴식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다. 고추모래시계와 10년프로젝트전시벽은 영양고추·테마공원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요소로 테마공원의 부주제인‘10년, 고추를 테마로 한 자연과 인간 공생 프로젝트’의 진행모습과 흔적을 남기기 위한 상징요소로 계획한다. 주요시설로는 고추마

V. 기본계획

1. 기본방향

테마공원의 기본방향은 ‘영양고추’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고추의 매력에 매료될 수 있는 계획과 옛 정

Table 3 공간별 주요계획

공간명	주요시설명	주요고려사항
산 넘고	고추모래시계 10년프로젝트전시벽 HOT스페이스 고추조형물 숲속무대 목재앉음벽 숲속계류 고추정보안내판 평의자 생명농업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의 대표적 상징시설로 외부공간에서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배치함 - 인지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추향과 매운맛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이용자의 안전 고려 - 숲속에 배치된 조형요소로 야간경관을 고려한 경관조명 기능 부여 - 목재소재는 철저한 방부처리가 요구되며 지형을 고려한 배치가 요구됨 - 동선의 결절점이나 동선 간에 휴게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함 - 자연형 실개천으로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식물을 도입함 - 인지성 확보를 위해 그림이나 기호를 사용토록 하며,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 인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 - 이용자의 행태를 파악하여 산책로 주변으로 설치함 - 효소발효장, 목재침가공공장, 축제용동물농장 조성함
물 건너	그늘시렁 줄나룻배 평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을 위한 시설로 설치 후 등나무, 능소화, 으름, 다래를 이용해 녹화함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축제나 이벤트를 위해 이용함 - 고추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함
굽이 굽이	특산물판매장 개울파티장 고추나룻터 세계고추전시장 고추잡자리원 조망데크 조망앉음벽 동물마실 고추물레방아 고추기원나무 다목적그늘막 목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막구조를 활용한 시설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함 - 고추요리체험관의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며 개울에 발을 담그고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계획함 -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적은 시스템과 구조를 도입하여 계획함 - 파대지와 삼지리의 파노라믹한 경치가 전개되는 곳에 배치함 - 주변경관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포토존을 고려하여 배치함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함 - 향토적인 옛 모습의 물레방아를 재현하고 방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 - 땀나물을 초점식재하고 주변으로 고추를 활용한 소망줄을 설치함 - 녹음을 위한 시설로 설치 후 등나무, 능소화, 으름, 다래를 이용해 녹화함 - 목재소재는 철저한 방부처리가 요구되며 지형을 고려한 배치가 요구됨

실안내센터, 고추숲광장, 고추트리, 고추조형물, HOT스페이스, 숲속계류, 고추빛언덕, 고추모래시계, 10년프로젝트전시벽, 생명농업지원센터 등이다.

‘물 건너’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고 자연의 맥박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 기존 자연환경(파대지)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망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청정생태환경 보존을 통해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관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파대지를 횡단할 수 있는 줄나룻배를 도입하고 수변경관과 조화로운 버드나무길을 계획하여 경관 체험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주요시설로는 버드나무길, 줄나룻배, 그늘시렁, 물고기산란지 등이다.

‘굽이굽이’는 두메시골마을의 정취에 빠지고 마을주민의 정을 느끼며 풍족함을 느끼는 공간으로써 기존 마을과 연계를 하고 ‘영양고추’를 활용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통해 시골투어리즘을 실현하도록 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고추에서 연상된 HOT한 이미지로 ‘불’이란 소재를 도입한 불놀이광장을 계획하여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주민을 위한 참여 공간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고추요리체험관 및 특산물판매장을 계획하여 이용객을 위한 편의제공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주요시설로는 고추요리체험관, 특산물판매장, 개울파티장, 불놀이광장, 고추나룻터, 고추마실언덕, 세계고추전시장, 고추잡자리원, 테마꽃들, 고추물레방아, 다목적 그늘막, 삼지꽃길, 삼지고갯길 등이다 (Table 3).

3. 주요도입시설

가. 고추모래시계

공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요소로 테마공원의 성격과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객들에게 공원의 진입감과 상징성을 부여한다. 야간경관을 고려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 신선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추마실 10년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설이다(Figure 6).

나. 10년프로젝트전시벽

고추모래시계와 연계하여 고추마실 10년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전시벽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이다. 1년 단위로 한개의 전시벽을 고추마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채워나가며 알림과 홍보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경관과 시설을 고려한 변화감 있는 벽체 높이계획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한다(Figure 7).

다. 고추조형물

산 넘고 공간의 동산 주변으로 고추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조형물을 랜덤하게 배치한다. 고추의 색상과 형태를 반영하여 수목의 하부공간에 다채로운 경관요소를 제공하고, LED램프를 이용한 조명기능을 부여하여 숲속 밝은 야경 분위기를 조성한다(Figure 8).

라. 그늘시렁

버드나무길을 산책하는 보행자들에게 녹음을 제공하고 다양한 덩굴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목재 색상을 선정하고 버드나무길 주변으로 4개소를 설치하며, 시설물 조성 후 등나무, 능소화, 으름 등의 덩굴식물을 식재한다(Figure 9).

마. 줄나룻배

공원이용 시 다양한 동선제공으로 변화감 있는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파대지를 횡단할 수 있는 동선을 줄나룻배를 통해 제공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하고, 평상시에는 나룻터에 정박하여 이용자들에게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축제나 이벤트 시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영한다(Figure 10).

바. 특산물 판매장

농산물 판매에 적합한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배치와 구성이 가능한 막구조 형태의 시설을 도입한다. 고추의 색상을 응용한 붉은색과 녹색의 색상으로 테마공원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Figure 11).

사. 세계고추전시장

세계 고추 품종을 사계절 내내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열대식물인 고추의 특성상 생육을 고려하여 온실구조로 계획한다.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에너지 효율 측면을 감안하여 녹지 마운딩 속으로 구조물을 연결시킨다(Figure 12).

아. 고추물레방아

향토적인 옛 모습의 물레방아를 고증을 통해서 재현하고 방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옛 물레방아가 위치했던 장소에 물레방아를 복원하여 옛 마을 풍경을 재현하고, 방아를 이용한 체험이 이루어진다(Figure 13).

Figure 6 고추모래시계 위치도.

Figure 7 10년프로젝트전시벽 위치도.

Figure 8 고추조형물 위치도.

Figure 9 그늘시렁 위치도.

Figure 10 줄나룻배 위치도.

Figure 11 특산물판매장 위치도.

Figure 12 세계고추전시장 위치도.

Figure 13 고추물레방아 위치도.

VI. 결 론

소득증대와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역 환경 특성 및 농산물을 테마화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특산물, 경관자원,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자원 등을 소득으로 연계시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지역 정체성 구축 및 지역의 특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농어촌테마공원의 바람직한 조성방향이나 효율적인 추진방법, 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한편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할 때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는 쾌적한 자연환경 또는 경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농촌주민들 또한 도농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시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의 보전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이 우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도농교류 활성화나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이라 하더라도 농촌의 고유한 경관이나 자연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위한 시설도입 등도 국토보전 차원에서 농촌경관보전이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농어촌테마공원의 바람직한 조성 방향의 정립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보전 및 소득화와 연계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테마공원의 조성 방향의 정립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보전 및 소득화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영양

군 삼지지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삼지1리의 일원이고, 대상지의 현황조사와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구상은 테마선정과 공간구성 부분으로 구분되며, 영양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토대로 4계절형 테마관광자원으로 부각한다. 두메시골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끼고 마을주민의 정을 느끼는 스토리를 구성하여 흥미로운 테마를 전개한다.공간구성의 기본방향은 영양고추를 매개로 시골 마실을 떠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굽이굽이의 테마별 공간을 도입함으로써, 공간진행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공간구성 시 기능과 활동유형을 고려하여 진입/상징 공간(산 넘고), 조망/휴식 공간(물 건너), 전시/체험 공간(굽이굽이)으로 구성한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영양고추’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고추의 매력에 매료될 수 있는 계획실현과 옛 정취의 따뜻한 인심을 간직하고 있는 영양의 고향 풍경을 명소로 알리기 위한 계획 실현을 제시하였다. 공간별 계획은 ‘산 넘고’는 테마공원의 주진입공간으로 ‘영양고추’의 대표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높은 녹지 비율의 숲 개념공간을 도입하여 숲속을 걷는 느낌과 휴식공간으로 계획한다. ‘물 건너’는 기존자연환경(파대지)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망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Figure 14 기본계획도.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굽이굽이’는 기존 마을과 연계하여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통해 시골투어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주민참여공간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 고유 자원인 ‘영양고추’의 테마화를 이루고, 지역활성화 및 소득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테마를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도교류 거점지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및 농촌다움의 보전을 고려한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농촌테마공원 공간조성을 통하여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도교류의 활성화와 지역의 소득창출 기반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테마공원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테마를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계획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신겸, 2005, 농촌관광과 문화마케팅 전략, 한국문화경제학회지, 8(1), 84-95.
2. 김용근, 이주엽, 2008, 체험형 농업테마파크 개발 잠재력 검토 -농협 안성목장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4(3), 1-9.
3. 리신희, 최세현, 윤성수, 최애순, 엄대호 201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테마공원에 관한 연구, 한국농공학회지, 53(3), 27-34.
4. 박미숙, 2012,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역사문화 테마파크 비교분석 -지역 고유성 체험이라는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관광 적용-, 농촌관광연구, 19(1): 99-118.
5. 박청인, 2010, 주제공원 이용자의 기대된 이미지와 지각된 성과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 -경기도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사례 중심으로-, 농촌관광연구, 17(2) : 107-124.
6. 영양군, 2010, 삼지지구 영양고추·연테마공원 조성 사업.
7. 이경진, 송병화, 2009, 예산군 농업·농촌 테마공원 계획,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5(1), 89-99.
8. 조정주, 2010, 용인 농촌테마파크 이용 후 평가,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최세현, 2011, 지역 어메니티 특성을 고려한 농촌테마공원 조성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접 수 일: (2011년 11월 9일)

수 정 일: (1차: 2011년 11월 27일, 2차: 2012년 5월 31일
3차: 12월 13일, 4차: 1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0일)

■ 3인 익명 심사필